



▶ 고창군립미술관 기획전

윤도(輪圖)의 전통·전승

(조선시대 나침반)



윤도장 보유자인 김종대 선생
아들 전수교육조교 김희수씨 작품
새로 수집한 평철 등 선보여
전시는 오늘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국가무형문화재 제110호인 윤도(輪圖)의 장인 김종대 선생과 그의 아들 전수교육조교 김희수의 작품전시회가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고창군립미술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 선생의 선친 작품과 새롭게 수집한 평철, 선추, 면경, 거북 등 30여 점의 330여 년간 전해진 나침반이 한자리에 모인다.
'윤도'는 몸에 차고 다니다 해서 패철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바늘을 활용해 지관이 풍수를 알아보거나 여행객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된 것으로, 항해자 및 천문학자들과 조선시대 한양으로 과거보러 떠나는 과객들에게는 필수 도구였다.
조선시대 흥덕 윤도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김종대 선생은 1996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10호 윤도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됐고, 아들 김희수 선생이 전수교육조교로 활동하고 있으며 손자가 5대째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전수교육조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장인의 아들 김희수 선생의 두 번째 개인전을 겸하는

▶ 전수교육조교 김희수씨



전시로 보유자의 전통 윤도와 새롭게 발전시킨 아들의 윤도를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전시다.
군립미술관 관계자는 "전시기간 중 윤도판본과 나침반을 이용한 어린이 윤도체험도 준비되어 있어 겨울방학을 맞아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고창 윤도의 전통과 전승을 알리는데 뜻깊은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울 아빠가 들려줘요” 스토리 발레 ‘호두까기 인형’

내달 1일 소리문화전당서 무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아빠가 들려주는 ‘호두까기 인형’을 12월 1일 오후 7시30분 연지홀에서 선보인다.
우아한 몸짓의 청미르발레단이 선사하는 이번 공연은 해설이 담긴 스토리 발레 형식으로 진행된다.
작품은 독일의 작가인 호프만의 ‘호두까기 인형과 쥐의 왕’을 각색한 것, 크리스마스 선물로 호두까기 인형을 받는 주인공 클라라, 삼촌에게 쥐 마왕과 호두까기 인형의 놀라운 이야기 듣게 되고, 호두까기 인형을 안고 잠이 든 클라라에 앞에 환상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어른과 아이들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을 이번 공연은 장우성 연출(중앙대예술대학원), 김지권(호두까기 왕자), Miki Shinohara(클라라), 허욱(드러셀마이어), 한설화(프리트츠) 등이 출연한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청미르발레단은 어렵게 느껴지는 발레에 대한 편견을 깨고자 2008년 창단된 단체. 이후 우리 전통이야기 심청과 콩쥐팥쥐 등을 무용으로 재해석하고, 호두까기 인형과 같은 작품에 해설을 곁들이는 공연으로 시선을 끌었다.
2014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일환인 ‘새터민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맡아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발레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공연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풍류, 은은한 멋 그리고 여운

국립민속국악원(박호성 원장) 기약단은 오는 12월 2일 오후3시 예원당 무대에서 하반기 정기연주회 ‘풍류, 은은한 멋과 여운’을 갖는다.
민속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은 고 지영희 명인에 의해 전승된 음악으로 경기음악의 밝고 맑은 음색이 돋보이는 ‘취타풍류’, 박양덕 명창(전북도 무형문화재 제2-13호 판소리 수궁가 예능보유자)이 함께 하는 ‘육자배기’와 ‘흥타령’, 전라도 지방의 무속음악에 뿌리를 둔 ‘시나위’고 서용석 명인이 구성한 것을 새롭게 보완한 ‘산조합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1997년 SKC에서 발매된 ‘국악 제8집’ 중, 고 서용석 명인이 구성한 ‘산조합주’ 음원을

완한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남원 광한루 누각의 자연소리를 담아 제작한 앨범을 모든 관람객에게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박호성 원장은 “이번 공연은 국립민속국악원 기약단의 감성과 음악적 해석이 담긴 새로운 의미의 작품들로 채워지며 민속음악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namwon.guak.go.kr>)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도전과 개척의 역사!

'전문건설인'의 미래를 향한 도전은 멈춤이 없습니다.

묵묵히 건설현장을 지키며 지역 경제의 주축으로 그 역할을 다해온 전라북도의 전문건설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전문건설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김태경

www.kosca35.or.kr

나창혁 '화로', 한국공예대전 대상 수상

최우수상에 이상훈씨 차지

(사)한국공예문화협회가 주최한 '2017 한국공예대전' 대상 수상자로 금속공예 나창혁(43·창아트) 씨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솥을 담은 그릇 '화로'.
작품은 용접에 의해 생기는 질감이나 패턴을 표면 장식 효과로 살려 자연스러운 멋과 풍미를 담아낸 오브제로 탄생했다.
홍정실(국가무형문화재 제78호 입상장 보유자) 심사위원은 "화로는 공예기능과 조형미를 추구한 작품"이라며 "특히 정교한 성형기술의 독창성과 정교한 수공성이 단연 돋보이는 수작"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철관을 나선형으로 일일이 재단하고, 불의 형태를 용접볼로 매우



면서 성형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은 도자공예 부문에 '생명과 우주의 성장, 발달 그리고 성숙'을 출품한 이상훈(44·익산문화재단) 씨가 차지했다.
서길용 (사)한국공예가협회 고문은 "도자기를 불에 구워서 만드는 소성과정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고화도로 소성해 특이한 효과를 표현해 냈으며 전통적인 물레 성형으로 제작하는 등 도자공예의 비범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우수상에는 섬유공예 이지영(23·수원대 미술대학 공예디자인학과 졸업) 씨의 '휴식, 충전'과 목칠·가구공예 이수진(37·숙명여대 조형예술학과 박사과정) 씨의 '절기와 구부리기'가 뽑혔다.
대상에는 상장 및 상금 30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에는 상금 천만 원이, 우수상에는 상금 500만원이 상장과 함께 수여된다. 시상식은 12월 5일 오후2시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린다.
수상작 전시는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정해은 기자